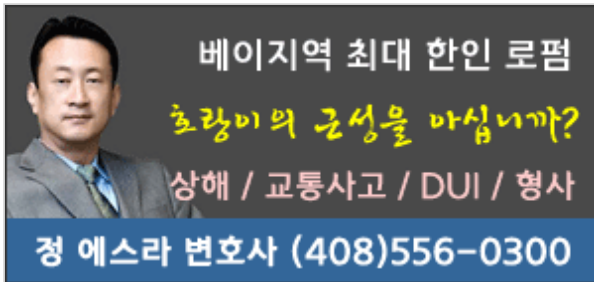


# “수고했어 애들아”, 다솜한국학교 종강식과 졸업식

by KDT posted MAY 26, 2021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는 화상 모임으로 2020~2021학년도 종강식과 졸업식을 지난 22일 진행했다.

이날 원은경 교감의 사회로 시작된 졸업식에서 박석현 목사는 "코리안아메리칸이라는 듀얼 헤리티지를 가진 우리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가진 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한국과 미국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남진 이사장은 "1년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어려웠을 텐데 무사히 마치고 종업식을 하게 되어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님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목표를 세워 살아가고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기르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의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10분 가량의 동영상을 감상했다.



<사진=다솜한국학교 최미영 교장>

최미영 교장은 학사보고와 함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이 성장했다고 격려했다. 또한 "한국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를 배우는 것은 김영옥 대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 한국인 100% 미국인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봉사상, 이사장상,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상 및 모범상 및 가장 큰 상인 1년 개근상등이 20여명의 학생들에게 수여됐다.

북가주 구연동화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이준 학생의 발표, 샌프란시스코 교육원 UCC 컨테스트에서 은상을 수상한 이준건, 이남현 학생의 "태극기를 통해 표현된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동영상상을 관람했다. 9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2021학년도 가을학기 개강을 알리는 광고로 종강식을 마쳤다.

졸업식에서는 전시현(명예졸업), 정지우, 이남현, 이준건 학생이 졸업했다. 졸업생들은 다솜을 통해 성장하고 선생님들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는 감회를 발표했다.

〈박현종 객원기자〉

Korea Daily Times Page view

Today : 3525 Yesterday : 11373 Total : 11315029

---